

법성고 농구부, 첫 경기서 졌지만 도전은 끝나지 않았다

전국체전 여자 고등부 농구 1회전서 강호 수피아여고에 55대 89 패
교체 선수 없는 5명 동료애로 똘똘... 남인영 코치 "내년에도 팀 운영"



지난 18일 부산대 경암체육관에서 열린 제106회 전국체육대회 여자 고등부 농구 1회전. 영광 법성고와 광주 수피아여고의 맞붙었다.

토너먼트 첫 경기부터 전남과 광주의 대결이 성사됐다. 교체 선수조차 없는 5명의 부원으로 구성된 법성고는 1회전부터 올 시즌 3관왕(춘계연맹전·연맹회장기·주말리그 왕중왕전)을 차지한 강호, 수피아여고의 벽에 부딪혔다.

결과는 55-89, 법성고의 패배였다. 영화 같은 반전은 없었지만 법성고 선수들은 "수고했다"고 서로를 격려하며 '작은 농구부'의 끈끈한 동료애를 보여줬다.

법성고는 패배 속에서도 성장의 가능성을 이야기했다.

경기를 복기하던 선수들은 이날의 '하이라이트'로 1학년 조운서의 첫 드라이브인을 꼽았다.

3쿼터 중반 공을 잡은 이은서(3년)가 조운서에 패스를 건넸고, 두 명의 수비를 마주한 조운서는 망설임 없이 골대로 달려가 레이업슛을 넣었다.

조운서는 "속공 찬스가 와도 항상 다른 사람 찾기 바빴는데, 언니가 마지막으로 만들어준 기회라고 생각하고 돌파했다"며 3학년들과의 마지막 경기에

대한 애착을 드러냈다.

"윤서가 첫 드라이브인에 성공했을 때 짜릿했어요. 윤서가 제 공을 받아 골을 넣은 것처럼 후배들이 농구부를 잘 이어받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은서에게 법성고에서의 마지막 경기는 후배들에게 바통을 넘겨주는 순간으로 남았다.

법성고의 농구부원은 단 5명이다. 지난 8월 2025-2026 여자 프로농구(WKBL) 신인 드래프트에서 나란히 청주 KB스타즈와 부천 하나은행에 지명된 김민경과 이은서가 떠나면 2학년 박은서, 1학년 조운서·이한울 세 명만 남는다.

법성고 농구부 남인영 코치는 "전남에서는 여자 구기종목 선수 육성이 어렵다. 먼 단위 학교에서 5명 부원을 채우는 것조차 매년 고비"라며 현실적인 어려움을 전했다.

그는 "5명밖에 없어서 강팀이 되기도 어렵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이번 대회에서 법성고가 고전한 이유도 적은 인원수와 직결돼 있었다.

지난 8월 이한울이 U-16 여자 아시안컵 국가대표로 차출됐고, 9월엔 김민경이 부상으로 이탈하면서 석 달 가까이 팀 훈련이 중단됐다.

남 코치는 "두 명만 빠져도 팀 호흡을 맞출 수가 없다. 준비가 안 된 채 체전에 나온 거다"라고 털어놨다.

또 하나의 패배 원인은 선수들의 짧은 구력이다. 법성고에는 고등학교에 와서 제대로 농구를 시작



영광법성고 농구부 조운서(1년·왼쪽부터), 김민경(3년), 이은서(3년), 이한울(1년), 박은서(2년)가 경기가 끝난 뒤 포즈를 취하고 있다.

하는 선수들이 많다.

남 코치는 "조중고를 거쳐 연대 육성된 엘리트 선수들과는 기본기가 다르다"며 공을 만진 시간에 따른 실력 차를 이야기했다.

하지만 법성고에서 농구공을 처음 만진 선수의 낮은 간절함이 큰 성과를 만들기도 했다. 프로 데뷔를 앞둔 이은서가 그 예다.

남 코치는 완도에 '운동신경 좋은 학생이 있다'는 소문을 듣고 금일중학교를 찾아가 3학년 재학 중이던 이은서를 스카우트했다.

이은서는 "그때 농구가 뭔지도 몰랐다. 거절했다면 평생 후회했을 것이다"라고 웃으면서 당시를 떠올렸다.

그는 "완도에서는 농구를 배울 기회조차 없었는데, 지금은 농구가 제 인생의 전부가 됐다"고 말했다.

남 코치는 "은서처럼 고교에서 농구를 시작해 프로에 지명되는 건 대단한 일"이라며 "전남에도 스포츠클럽이나 농구교실이 많아져서 아이들이 재능과 흥미를 알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수도권과 달리 전남은 생활체육 기반이 약해 선

수 수급이 더 어렵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남 코치는 포기하지 않는다.

"법성고는 악으로 짙으로 버텨온 팀이에요. 내년에도 맨땅에 부딪히며 팀을 꾸릴 겁니다."

박은서는 "농단이도 계속 굴리다 보면 커진다. 우리도 지금은 작지만, 점점 커질 것이다"라며 희망을 얘기했다.

올해 법성고의 경기는 끝났지만, 이들의 도전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부산 글·사진=설혜경 기자 sir@kwangju.co.kr

전남도장애인체육회 "목표는 10위권"

‘31일~11월 5일’ 대회 앞 결단식...골볼팀 4연패 도전



전남도장애인체육회가 제45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에 앞서 20일 전남체육회관에 선전을 다짐하는 결단식을 열었다. <전남도장애인체육회 제공>

전남도장애인체육회가 '제45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에 앞서 결단식을 열었다.

20일 전남체육회관에서 진행된 이번 결단식에는 선수단을 비롯해 강위원 전남도경제부지사, 김태균 전남도의회 의장, 박정현 전남도장애인체육회 상임부회장, 김대중 전남도교육감, 이현영 NH농협은행 전남본부 영업부장 등 200명이 참석했다.

행사는 선수들의 훈련 영상 상영을 시작으로 체전 참가계획 보고, 선수단기 수여, 격려사, 축사, 선수대표 선서, 체육성금 기탁 순으로 진행됐다.

전남도, 전남도의회, NH농협은행 전남본부는 선수단 선전을 기원하며 체육진흥성금을 전달했다.

지난해 대회에서 역대 원정 최대 메달(금 50개,

은 55개, 동 75개)와 최고 득점을 기록하며 9위에 올랐던 선수단은 올해도 한 자릿수 순위를 목표로 한다.

'올림픽 신기록' 보유자인 사격 이윤리(완도군청), 사이클에서 '한국 신기록'을 작성한 박솔기(한전KDN), 다관왕에 빛나는 육상의 김정하(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황상준(농어촌공사) 등이 순위 싸움 전면에 선다. 전남장애인체육회 골볼팀은 대회 4연패에 도전한다.

한편 이번 체전은 10월 31일부터 11월 5일까지 6일간 부산에서 열린다. 전남선수단은 30개 종목에 선수 403명과 임원 등 301명 등 총 704명의 선수단을 파견한다.

/김여울 기자 wool@

역시 우수 간판...전남도청 김민수, 산타 60kg급 4연패

전남도청, 전국체전 금·은·동
고른 기량 과시...종합 5위 성적

전남 우수가 제106회 전국체육대회에서 금·은·동메달을 두루 거두며 기량을 과시했다.

18일부터 20일까지 사흘에 걸쳐 진행된 우수 종목에서 전남도청은 총득점(종목종합득점+메달득점) 880점으로 종합 5위로 마무리했다.

20일 부산 동의과학대학교 석당문화관에서 열린 우수 경기에서 남자 일반부 산타-60kg급 김민수(전남도청)는 정상에 오르며 대회 4연패 위업을 달성했다.

김민수는 결승전에서 노련한 기량으로 손재민(대구시우수협회)을 2-0으로 압도하며 한국 우수 간판임을 입증했다.

그는 "1년 동안 준비한 시합을 잘 마쳐 만족스럽다"면서도 "팀 전체가 다 같이 고생했는데, 원하는 성적을 내지 못한 건 아쉽다"고 소감을 밝혔다.

같은 종목 산타-56kg급에서는 윤웅진(전남도청)이 동메달을 차지하는 등 7년 연속 메달 행진으로 메달창의 위업을 보여줬다.

지난해까지 6연패를 달성하던 그에게 이번 동메달은 다소 아쉬웠다. 우수는 은퇴 나이가 만 35세로 정해져 있어, 그에게 이번 체전은 은퇴 무대였다.

윤웅진은 "결과는 항상 아쉽다. 아쉽지만 메달을 따서 의미가 깊다"며 "이번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냥 최선을 다하자, 후회 없이 내려오자' 그거 하나밖에 생각 안했다"고 이야기했다.

그는 또 "최선을 다했기에 아쉬움은 없고, 이제



우수 전남도청 선수단이 포즈를 취하고 있다.

선수가 아닌 다른 길로 가려고 한다. 후배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내가 길을 내줘야 한다"고 은퇴 소감을 밝혔다.

남자 일반부 태극권전능에서는 장민규(전남도청)가 19.370으로 은메달을 차지하며 전남도청 선수단의 저력을 뽐냈다.

장민규는 "목표였던 은메달을 달성해 기쁘다. 국가대표 하면서 올해 시합이 한 달 간격으로 계속 있어 무릎도 안 좋고 격정을 많이 했는데 잘 경기 마칠 수 있어서 다행"이라고 소감을 전했다.

고등부에서도 성과가 이어졌다. 체전 첫 출전이

었던 배성운(순천금당고)이 남자 고등부 산타-65kg급에서 동메달을 따내며 차세대 주자로 이름을 알렸다.

6년 전부터 MMA(종합격투기·mixed martial arts)를 준비하다 전국체전을 한 달 앞두고 종목을 바꿔 출전한 그는 "첫 대회에서 메달을 따기분이 좋다. 연습할 때보다 대회에서 더 잘됐던 것 같다"며 "준결승에 와서는 긴장한 탓에 기량을 마음껏 다 보여주지 못했다. 다음 경기 때는 극복하고 싶다"고 다짐했다.

/부산 글·사진=박연수 training@kwangju.co.kr

광주FC, 생존 향한 첫 단추 펜다

파이널라운드 25일 홈서 FC 안양과 일전...다음달 9일엔 대구 원정



광주FC가 홈에서 생존 싸움을 시작한다.

한국프로축구연맹이 20일 '하나은행 K리그 1 2025' 파이널라운드 일정을 발표했다.

33라운드까지 진행된 정규라운드 성적에 따라 1-6위팀과 7-12위 팀이 각각 파이널A와 B그룹으로 나눠 33라운드까지 5경기씩 진행한다.

전북현대의 조기 우승이 확정된 만큼 파이널A 6개 팀은 AFC 챔피언스리그 진출권을 놓고 경쟁을 펼치게 된다. 파이널B 팀들은 잔류를 위한 전장을 벌인다.

33라운드 울산전 패배로 8위가 된 광주는 25일 오후 2시 광주월드컵경기장에서 FC안양을 상대

로 파이널라운드 첫 경기를 치른다. 이어 11월 2일 오후 2시 제주SKFC와 홈에서 맞대결을 갖는다.

광주는 11월 9일 오후 2시에는 원정길에 나서 최하위 대구FC와 '달빛더비'를 치른다.

11월 22일 오후 4시 30분 홈에서 울산HD와 경기를 갖는 광주는 11월 30일 오후 2시 수원FC와의 원정경기를 통해 올 시즌 대장정을 마무리한다.

K리그1 12위 팀은 내년 시즌 K리그2로 자동 강등된다.

10위와 11위는 K리그2 팀과 강등과 승격을 놓고 다투야 한다. 10위 팀은 K리그2 플레이오프 승자, 11위 팀은 K리그2 2위 팀과 운명을 건 '승강 플레이오프'를 치러야 한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심규근, 생일날 첫 출전...400m 허들 4위

전남도체육회, 6명에 생일 이벤트

제106회 전국체육대회 육상 남자 18세 이하부 심규근(전남체고 2년)이 의미 있는 생일을 맞았다.

심규근은 20일 부산아시아드주경기장에서 열린 400m 허들 예선에서 59초62로 결승선을 통과, 처음으로 출전한 전국체전에서 4위를 기록했다.

전남체육회 출신으로 중학교 1학년 때 육상을 처음 시작한 그에게는 이번이 고등부 첫 출전이였다.

생일날 경기를 치른 그는 "생일이었는데 기록이 예상했던 것보다 안나와서 아쉬웠다. 57초 90을 목표로 뛰었다"며 "훈련 더 열심히해서 다음 시합 때 꼭 더 좋은 성적 거두고 싶다. 내년 기록을 위해 동계 훈련도 열심히 임하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심규근이 속한 전남체고 팀은 22일 1600m 계주

를 남겨두고 있다.

그는 "팀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싶다. 생일은 체전 끝나고 가족들과 시간 보내며 축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전남도체육회는 '깜짝 생일 이벤트'를 준비했다.

도체육회는 대회 중 생일을 맞은 5개 종목 6명의 선수의 속소를 찾아 케이크 상품권을 전달했다. 일정상 방문이 어려운 선수는 송진호 도체육회장이 직접 축하 전화를 하고, 기프트콘을 선물했다.

도체육회는 대회에 집중하기 위해 생일을 잊고 지내는 선수들을 위해 지난 2023년부터 생일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다.

/부산=박연수 기자 training@kwangju.co.kr



20일 부산아시아드주경기장에서 열린 400m 허들 예선에 참가한 심규근(전남체고). <심규근 제공>